

---

# 2021년 제51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1. 12. 17. ~ 12. 23.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산이 좋아 물이 좋아		
방송일자	2021. 12. 17.	시청률	

### 【총 평】

‘무녀도 바다에서 겨울을 만나다’편에서는 군산 고군산군도에 속해 있는 섬 ‘무녀도’를 배경으로 볼거리와 먹을거리,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진솔하게 그려냈다. 노란색 버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귀촌인의 고향사랑, 굴 채취를 하는 모자의 정겨운 모습에서 향토애와 가족애를 일깨운 구성이 돋보였다. 이 밖에 선유8경의 뛰어난 풍광, 홍합탕과 우럭매운탕 등 제철음식 소개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를 되살리는 효과를 진작시켰다. 선유도, 대장도, 장자도의 뛰어난 풍광, 겨울 바다 모습이 어우러져 확진자 급증으로 다시 움츠러든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 【구성 및 내용】

‘무녀도 바다에서 겨울을 만나다’편은 고군산군도의 겨울이야기를 만나기 위해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비롯해 장자도와 무녀도를 돌아보며, 5년 전 귀향했다는 주인공이 운영하는 버스카페를 아름답게 담아냈다. 고군산군도는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 등 60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군산의 군도다. 고군산군도의 겨울이야기를 만나기 위해 명사십리 해수욕장에서 시작한 오늘은 군도를 잇는 다리를 통해 장자도와 무녀도를 돌아보았다.

신시도에서 고군산대교를 건너면 만나는 무녀도에는 특별한 명물이 있다. 노란색으로 꾸며진 버스카페다. 고군산군도의 섬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방문객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섬들도 특별한 공간이 생기는 등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버스카페의 주인은 무녀도를 조금 더 알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카페를 시작했다. 이전 태권도장을 운영하면서 학원차량을 운행해봤고 그러다보니 버스 색깔도 노란색으로 꾸몄다. 점차 입소문이 퍼지면서 한 대뿐이었던 버스도 어느새 여러 대로 늘어났다.

버스카페를 운영하며 고향을 지키는 40대 귀촌인과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모자의 깊은 정, 가족의 울타리 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다. 굴 채취를 체험하고 맛깔스런 제철음식을 먹는 모습이 정겹게 다가왔다. 사람냄새 나는 진행과 내레이션으로 프로그램의 제작의도를 살려냈다. 또한 무녀도 낙조, 노란색 버스 카페와 쥐똥섬, 굴 채취, 명사십리 해변, 겨울 바다 모습 등 아름다운 경치가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었다. 이 밖에 섬에 얹힌 사연과 평생을 바다에서 굴과 바지락 등을 캐며 자식을 키운 어머니의 모정과 고군산군도의 먹거리를 자연스럽게 잘 담아냈다. 하루에 두 번 바닷길이 열리는 쥐똥섬에서 굴을 캐며 생업을 이어 온 어르신들의 고단함과 품질 좋은 자연산 굴의 우수성을 자연스럽게 잘 담아내며 흡입력을 높였다. 하루에 두 번 바닷길이 열리는 쥐똥섬에서 굴을 캐 수 있는 시간은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산이 좋아 물이 좋아 시즌’은 ‘바람이 머무르는 곳, 바다가 쉬어가는 곳,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을 소개해 ‘자연과 인간’이라는 휴먼 다큐의 기획의도를 살리고 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1. 12. 17.	시청률	

## 【총 평】

‘건강한 교통도시 만들기’는 정책홍보 차원에서 돋보였고 코로나19 힐링과 연말 시의성을 살린 각종 이벤트와 구세군 자선냄비를 소재로 한 다양한 아이템이 시선을 끌었다. ‘건강한 교통도시 만들기’는 배달 이륜차와 택배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정책으로 매연 소음공해 해소와 함께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유지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되었다. 특히 ‘우회전 차량의 사고 위험’을 고발한 리포트는 경각심 제고와 캠페인 효과라는 측면에서 탁월했고, 현장의 위험한 사례 고발, 위반 건수 자료 인용, 댓글 소개, 도로교통법 개정 움직임, 단속경찰과 교통전문가 인터뷰 구성 등 완성도가 뛰어났다. ‘자선냄비에 온정 물결’은 코로나19 속 성탄절과 연말을 앞둔 시점에서 현장성을 살린 리포트 구성과 청소년 기부 확산 소식과 함께 간편 기부방법을 소개한 점도 유익했다. 세계 속의 섬으로 선정된 박지도의 매력, 시민을 위로하는 해운대 빛 축제 아이템은 지역성 소재로 흡인력을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 배달 이륜차와 택배차, '전기차'로 바뀐다  
배달 이륜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니 소음이 없고, 탄소배출량이 감소효과와 유지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 2025년까지 모든 배달 이륜차가 전기차로 교체된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공중전화부스를 활용해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를 2천 개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 교차로 우회전 차량 '보행자 보호' 소홀  
차량주행 신호와 보행신호가 모두 적색 신호일 때 우회전이 허용된다. 도로교통법 27조에 따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운전자는 일시정지 해야 한다.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사랑의 나눔' 구세군 자선냄비에 잇단 온정  
'거리에서 울리는 희망의 종소리'란 주제로 진행되는 구세군 모금활동에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 1928년부터 시작한 구세금 자선냄비는 올해 새로운 방식인 QR코드, 신용카드 등을 통한 기부도 받고 있다.
- 코로나19로 지친 시민 위로하는 '해운대 빛축제'  
어둠이 내려앉은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광장을 특이한 빛이 밝히고 있다. 57년전 해운대에 나타난 300살 거북이 조형물 등 수많은 알전구들이 밤거리를 밝히고 있다. '해운대 전설, 빛으로 담다'라는 '해운대 빛축제'는 내년 2월 2일까지 열린다.
-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우뚝 선 '보랏빛 섬'  
보랏빛 섬으로 유명한 전남 신안군 박지도와 반월도, 박지도와 반월도에 보라색꽃이 많이 자생하고 있어 신안군은 모든 조형물을 보라색으로 바꾸었다. 이달 초 UN 세계관광기구는 박지도와 반월도를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1. 12. 18.	시청률	

### 【총 평】

‘매일 첫눈처럼, 꿈 내리는 정원 - 충북 괴산 제1호 민간정원’편에서는 동화 속에 나오는 붉은 벽돌집과 트리하우스가 있는 예쁜 정원을 가꾼 귀농 26년 차 부부의 특별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아내를 위해 아내 이름을 딴 ‘정의산’을 만들고, 귀농한다는 남편 뒤를 따라 굶은소리 앓고 내려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간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부부의 젊음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따뜻한 시선을 따라 그들이 15년 동안 가꾼 숲길을 편안하게 산책하듯 즐길 수 있게 구성했다.

부부가 꿈을 이룬 정원은 괴산군의 첫 민간 정원으로 사람들에게 꿈을 나누고 싶어서 개방을 했다. 트리하우스에서 특별한 경험도 하고, 카페도 운영하고, 어린이들에게 정원을 구경시키며 반려식물 기르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이곳을 자연생태 체험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부부의 꿈이다.

### 【구성 및 내용】

충청북도 괴산군 불정면에는 올해로 귀농 26년 차인 임철오, 홍정의 부부가 정성을 다해 꾸민 정원이 있다. 괴산에서는 첫 번째이자 충청북도에서는 다섯 번째로 지정된 민간 정원이다. ‘백설 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주제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실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곳의 모든 것이 동화 속처럼 아름답게 완성돼 있지만 사실 이곳에는 부부만이 알고 있는 고되고 힘겨웠던 세월과 사연이 담겨있다.

26년 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던 부부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다. 남편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공기 좋은 곳을 찾아 괴산으로 내려온 부부는 한 마지기의 밭을 시작으로 농사를 배워가기 시작했다. 처음 짓는 농사가 너무 힘이 들 때면 멀리 보이는 월악산을 바라보며 지금 이곳에 집을 지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며 그 시기를 넘겼다. 그때부터 조금씩 주변의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그러다 마침내 산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면서 꿈으로만 간직했던 일들이 하나씩 현실로 이루어졌다.

남편이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포크레인을 직접 운전해 길을 만들고 땅을 다지는 사이, 아내는 원예 자격증, 원예 치료사 등의 자격증을 따면서 묵묵히 그 꿈을 함께 하며, 그렇게 15년의 세월을 통해 조금씩 완성된 부부의 정원이다. 남편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장식을 위해 사용할 나무를 손질한다.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좋아해서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손수 만들어 동네를 밝힌다. 점등식에는 친구들과 가까운 이웃들이 방문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함께 즐기며 고생한 주인공에게 감사를 전한다.

지난 5월 ‘민간 정원’으로 등록되면서 관광객과 체험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부부의 꿈은 노력을 통해 현실이 되었고,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얻어가기 위해서 찾아오는 방문객에게는 쉽표를 느낌표로 만들어 드리는 최고의 민간 정원으로 꾸며갈 계획이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1. 12. 19.	시청률	

### 【총 평】

‘새로운 남북관계 시작의 주인공, MZ세대가 만들어갈 평화교류’편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풀리지않는 상황에서 통일의 미래세대이자 새로운 남북관계 시작의 주인공인 MZ세대를 대상으로 지난 회 남북 MZ세대가 꿈꾸는 통일에 이어 남북 MZ세대가 만들어갈 평화의 한반도를 깊이있게 다루었다. 남북교류 경제효과가 무궁무진한 만큼 통일에 앞서 사람과 문화가 오고가는 평화교류가 우선이라는 해결책이 유의미했다. 특히 남북 MZ세대가 이루고 싶은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우선 막연한 적대감과 한반도 긴장상황을 완화하고 사람과 문화가 오고 가는 남북한 평화교류가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점이 설득력을 높였다. 남북 MZ세대 남녀가 출연해 거침없이 자유분방하게 토크를 벌인 포맷이 신선했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교류 관광사업으로 땅굴투어를 제안하고 남북교류 창업아이템 배틀을 통한 번뜩이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눈길을 끌었다.

### 【구성 및 내용】

연말특집으로 남북 MZ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역할을 성찰해봄으로써 향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기부여와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자유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북한 이야기는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선입견을 깨주었다. 미래를 이끌어갈 MZ세대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들으며 기성세대와는 다른 통일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남북통일이 된다면 창업할 만한 창업 아이템과 평화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MZ세대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남북한의 문화와 소득수준의 차이로 인해 빠른 통일 보다 이해를 위한 교류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K-콘텐츠가 이미 인기를 얻고 있으므로 북한의 협업이 이루어지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난 2007년 드라마 사육신을 공동제작 했고 이는 최초의 남북합작드라마다. 2018년 4월에는 평양에서 남북예술단의 합동공연이 이뤄지기도 했다. 남북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가 가장 가까이 있지만 SNS 소통이 되지 않는 나라가 북한이다. 서로 만날 순 없어도 마음만은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DMZ 땅굴은 이미 남북간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관광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공동 관광프로그램이 이미 수차례 진행된 바 있으며, 10년간 200만 명 이상이 금강산을 방문하기도 했다.

남북청년들의 창업아이템으로 북한 크리에이터 양성 학원을 설립한다면 많은 이들이 수감할 것이다. 북한의 흥미로운 전설, 미스터리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서 북한 미스터리 콘텐츠 사업은 좋은 아이템이다. 이 밖에 북한의 수많은 전통주들을 모아 남북한이 전통주 갤러리를 조성하고 블렌딩하며, 전문 소믈리에의 활용, 북한 개발에 따른 쓰레기의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사업 등을 제시했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1. 12. 19.	시청률	

### 【총 평】

유치원 교사를 그만두고 프랜차이즈 술집을 창업한 초보사장이 출연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의 웃음과 애환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창업 6개월 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매출이 없게 된 상황에서 진상 손님과 어린손님들의 무모함, 세대별 음식 가격 계산법 등 자영업자들의 고단함을 들어볼 수 있었다. 또한 창업은 인생에 있어서 도전이며, 경험의 중요성을 전달했다.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 조사도 많이 하고 공부를 충분히 한 후에 창업을 해도 늦지 않다는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다. 끈대할머니의 명확한 해결책보다는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박하고 솔직한 심경이 잘 반영되었다.

### 【구성 및 내용】

‘직장과 창업 사이’편에서는 2020년 11월에 인천에서 뉴트로 술집을 개업한 초보 사장이 출연해 ‘직장과 창업 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고향인 인천으로 이주한 주인공은 어린이집 선생님이었지만 퇴근 이후에도 이어지는 업무에 어려움을 느껴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다. 오랜 시간 인천에서 동태탕 장사를 해 오신 시어머님의 조언과 스쿼시 강사인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창업을 했다. 5천만 원의 창업금을 바탕으로 월세가 조금 저렴하지만 상권에서는 약간 벗어난 지점에 가게를 얻었고, 처음 하는 장사라 비교적 안정적인 프랜차이즈로 시작했는데 방역이 격상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눈물’편에서는 창업을 한 지 5개월 만에 방역 4단계로 올라가면서 하루 매출 150만원의 가게에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야기를 전달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았지만 월세를 내는 것에 그칠 뿐 가게를 유지하는 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임시 휴업으로 방역에 힘을 실은 후 다시 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방역 패스에 대해서도 손님이 더 줄어들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끈대 할매는 “우리나라 속담에 손톱 밑에 가시만 알지 심장 썩어가는 것은 모른다. 지금 방역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일을 초래할 수 있어. 좀 더 크게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고 수발러는 “가게가 문을 닫으면 한 사람의 인생이 문을 닫은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했다. 진상 손님으로는 머리카락을 문제 삼아서 음식을 반품시키는 사람, 나이가 많다고 무례하게 구는 손님, 미성년자임에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손님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술값을 내는 모습에도 세대 차이가 있다고 말하며 30대는 사장으로부터 카드를 선택하게 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20대는 꼭 인원수대로 공정하게 계산을 하려고 하며 1원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도 덧붙였다.

프로그램	KTV 특집 단계적 일상회복, 그 후 50일		
방송일자	2021. 12. 19.	시청률	

### 【총 평】

**KTV 특집** ‘단계적 일상회복, 그 후 50일’에서는 코로나19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의 변화와 함께 악화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일깨우는 메시지를 담았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고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추가접종, 방역 수칙 준수 등 절제되고 책임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그 후 50일’을 분야별로 현장에서 추적 점검한 다큐형식의 포맷이 소구력을 높이고 향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다. 이 밖에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의 변화를 봉사소모임, 자영업, 대학생일자리, 가정, 학교별로 디테일하게 점검한 부분이 현장감을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스포츠관람, 심야 영화보기, 친구 만나기, 여행 등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 온 사람들의 느낌과 다시 활기를 찾은 자영업자 등의 삶을 조명했다. 또한 확진자 증가로 다시 찾아 온 4주간 특별방역대책의 필요성을 밀도 있고 시의적절하게 기획한 점이 돋보였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단계적 일상회복을 실시한 유럽의 현재 상황을 조명하며, 영국과 독일의 사례를 통해 방역강화와 백신접종이 확진자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화두를 던진 구성이 설득력을 높였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자영업자의 상황도 이전보다는 나아졌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었는데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식자재 구입량도 덩달아 증가했다. 이는 매출 역시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아르바이트의 수요 또한 늘어나면서 추가로 고용도 한 식당들도 있다.

일상회복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는 불가피하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확진자 비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망자 또한 증가하면서 확진자들은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정했다. 더불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은 상황을 더욱 어렵게 했다. 이에 자영업자와 시민들은 다시금 악화되는 현실에 허탈하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해 60세 이상의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3차 접종도 신속히 추진했다. 3차 접종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이미 3차 접종을 시행한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면 3차 접종의 안전성은 물론 접종의 이득도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들, 학생들의 백신접종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학부모들이 많다. 그러나 학생들의 백신접종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접종이득이 높다. 만 18세 이상 성인 중 백신 접종 미완료자는 전체의 7.7%다. 그러나 백신은 국내외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되고 이웃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수단이다. 즉 나를 위한 행동을 넘어서서 우리를 위한 행동이다.

프로그램	우리동네 개선문		
방송일자	2021. 12. 19.	시청률	

## 【총 평】

‘보령해저터널 개통…원산도행 버스노선 신설’편은 지난 12월 1일 개통한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원산도까지 40~50분 걸리던 뱃길이 육로로 15분이 소요되는 교통 환경 변화를 주민 시각으로 들여다보았고, “학교 앞 주차 대란…광주 서구 ‘한쪽주차제’ 검토”는 왕복 2차선 도로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 당국의 노력을 살펴보았다.

보령 해저터널 개통으로 주민들의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가 좋아졌다. 특히 원산도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된 모습이 잘 나타났고 대천역에서 원산도를 연결하는 시내버스 이용 모습과 주민들의 모습이 현장감 있게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광주광역시 학교 앞 주차 대란으로 인한 ‘한쪽주차제’ 검토는 학생들의 안전과 주민의 불편 사항을 고려한 정책실현을 기대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광주시 서구는 대안을 검토하고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 안전과 편의를 위해 현장의 계도와 지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생과 주민, 택시 운전자, 담당공무원 등 다양한 입장을 인터뷰하여 최대한의 정책을 도출하고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시청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 ■ ‘보령해저터널 개통…원산도행 버스노선 신설’

세계에서 5번째로 긴 보령 해저 터널이 지난 1일 개통되었다. 이 해저터널의 개통으로 보령 대천항에서 원산도로 연결되고 원산 안면도로를 이용해 태안 안면도로까지 연결이 되어 접근성이 좋아졌다. 해저터널은 6.9Km 길이로 세계에서 다섯 번째 규모이며, 대천 해수욕장에서 태안 안면도 영목항까지 거리가 95km에서 14km로 줄어들고, 소요시간은 90분에서 10분으로 80분이나 단축되었다.

충남 서해안을 대표하는 관광지는 대천 해수욕장과 태안 안면도인데 이 두 곳은 운행거리가 길어 관광 효과가 떨어졌었다. 해저터널 개통으로 앞으로는 이동 시간이 단축되어 관광객들의 편의가 좋아지고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 “학교 앞 주차 대란…광주 서구 ‘한쪽주차제’ 검토”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고등학교 앞길은 차량 통행량도 많고 2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도로가 점령당해 있어 차들의 운행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근처에 초등학교까지 있어 도로 안전에 극히 주의가 필요하다. 도로 위의 위험에 대해 황색 실선으로 도로 양 옆에 주차를 불가하게 했지만 이는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차들이 도로를 점령하고 학생들이 다니는 길이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하는 민원과 이에 대립되는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민원을 받고 있다. 주민들과 대담 등을 통해 의논을 나누고 방안을 추구하고 있지만, 이런 갈등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지자체인데,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인터뷰는 아쉬움을 남겼다.